

3/12/17

설교 제목: 네가 과연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없느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8:1-22

- (욥 8: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 (욥 8: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절관주** 욥 6:26
- (욥 8: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 (욥 8: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 (욥 8: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 (욥 8: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절관주** 시 35:23, 시 44:23
- (욥 8: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욥 8: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절관주** 욥 42:12, 신 4:32
- (욥 8: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 (욥 8: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 (욥 8:11)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절관주** 창 41:2
- (욥 8:12)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절관주** 시 37:2
- (욥 8: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 (욥 8:14)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 (욥 8: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 (욥 8:16)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절관주** 시 37:35

- (욥 8:17)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 (욥 8:18)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절관주 욥 7:10
- (욥 8:19)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흠에서 나리라 절관주 전 1:4
- (욥 8: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 (욥 8: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절관주 시 126:2
- (욥 8: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는 전체적인 윤곽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부분을 이해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 장 서론

3-42:6 본론: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이는 설전을 중심으로 이어 가는데 좀 깁니다.

3 장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4-31 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벌이는 논쟁이 나오며

32-37 장에는 엘리 후의 독백이 나오고

38-42:6 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2:7-17 결론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큰 재앙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차 욥을 찾아 옵니다.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저마다 충고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이 반박하며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욥과 세 친구들(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을 얼핏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에 하자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들의 말에 억울해 하며 반박하고 하나님께서도 욥의 편에 서셔서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욥 42: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 42: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22분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을 선언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권위의 위엄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숨을 죽이고 판결에 귀를 기울였으며 판결이 선언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 판결에 대해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이 순복해야만 합니다.

본 구절은 감히 헌법 재판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최종 판결로 욥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두 주에 걸쳐 욥기 서론 부분인 1, 2장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본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론 모든 장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몇 장만을 택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친구 빌닷의 욥을 향한 공박이 나오는 8장을 가지고 도대체 욥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욥은 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 반박을 했으며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자 의도하셨는가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욥의 집을 찾아 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뱉는 말은 부당한 재앙으로 인한 고통으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거라고 울부짖는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욥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진정 위로자가 되어 주기보다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교사가 되어 욥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그들이 욥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옳은 말처럼 들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욥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오래 전부터 내려 오는 전통에 기반을 둔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일에 인과응보적인 입장, 즉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죄의 업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도 그 원인을 캐보면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곧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종용하고 정죄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을 보겠습니다.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공략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욥 4: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 4: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니

심는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에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지요.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기와 참소로 부당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인과응보나 추수의 법칙을 적용한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교육용 충고, 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셔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니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라는 충고는 욥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기는 커녕 욥을 더욱 힘들게 했을 뿐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욥과 같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까닥없이 오는 신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초라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울며 겹옷을 찢고 띠끝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밤낮 7 일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을 격양케 하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욥을 격양케 했으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과 하나님을 그토록 분노케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지식과 지혜, 즉 신학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혜, 심지어는 그동안 체험했던 영적 경험까지 총 동원하여 욥의 재앙에 대해 해석하고 욥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영적인 교만과 무분별성을 보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류의 신학적인 해석이나 도덕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부당한 재앙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우리도 재앙을 만난 친구나 이웃들을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재앙 만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고 위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로부터 공박을 받은 욥은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절절히 토해냅니다.

친구들을 향하여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 6: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욥 6: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자신은 친구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란 적도, 목숨을 살려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친구들에게 아무 도움도 요청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백한 자신을 믿어 주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친구들이  
한없이 섭섭했던 것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네가 과연 하나님께  
잘 못한 것이 없냐'며 욥을 더욱 더 거세게 몰아 부칩니다.

본문입니다.

엘리바스 못지 않게 지혜와 경륜을 갖춘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취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필경 욥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인과응보의 법칙과  
뿌린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빌닷의 이러한 태도는 부당하게 열 자녀와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 빈사 상태에 빠진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닷의 말이 일반적인 경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공박은 처음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욥 8:2)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 8: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욥의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반박, 즉 욥 자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는 항변을 '거센  
바람' 즉 함부로 내뱉는 말로 취급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 주시는데  
네가 이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닷은 욥의 죽은 열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 댁니다.

(욥 8: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욥의 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열 자식과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고 병까지 얻어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폭언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너라도 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충고합니다.

(욥 8: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욥 8: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 8: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목사님들이 개업 예배를 드릴 때나 교인 가정에 심방을 가거나 많이 인용하는 귀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적잖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개업 예배나 심방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인용하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네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한 구절만 떼어 가지고 보면 이 구절은 새로 시작하는 성도의 사업이나 가정을 축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 이 구절은 성경 문맥 상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미로 씌여진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말하는 미약한 시작이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한 고로 처하게 된 고난받는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범죄하여 고난받고 있는 욥이 이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비록 지금은 범죄한 댓가를 치르느라 미약하게 고난을 받으며 살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빌닷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구절 만을 발췌해서 상황에 맞추어 임의로 적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이 되고 맙니다.

빌닷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욥 8: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욥 8: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욥 8: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욥이 회개하고 돌아 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욥은 속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욥기는 책의 전반적인 개요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구절 구절이 일반적인 원리로는 전혀 틀린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욥기는 일반적인 원리를 모든 곳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신학적 지식과 지혜, 경험 등을 가지고 고난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긍휼이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한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주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려 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우리 자신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평생 가슴 깊이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